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4월 19일(금)

(음력 3월 15일)

Пятница

19 апреля 2019г.

№ 15(11683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들어 전 러시아에서 전례적인 토요노동행사들이 시작되었다. 지난 1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토요노동에는 시민 1만3500여 명이 나가 시내 청소 작업에 나섰다. 토요노동은 올 4월 20일과 27일에 계속 있을 예정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주지사 권한 대행, 쿠릴스크 구역 방문

지난 16일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쿠릴스크 구역을 방문해 구역의 주요 사회경제시설(양어장, 수산물공공장, 병원 등)을 시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날 그는 현지 주민들과 만나 약 3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지방자치체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노후 및 붕괴 주택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고르노에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다. 국방부 관할 지역이었던 이 마을은 작년 국방부의 소유권에서 벗어나 사할린주에 넘겨졌다. 마을의 제반구조와 주택들 너무 낡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쿠릴스크 근교에 위치한 키토워에 마을에 새 주택 9동을 공사하기로 했다. 첫 주택은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쿠릴스크 구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새 주택 총 1만7000여 m² 가 필요하다.

주지사 권한 대행은 이날 도로포장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외에도 올해 두 곳(레이도워촌과 쿠릴스크)에서 새 학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주민들과 만남에서 통신, 인터넷 문제도 논의되었다. 지사 대행은 올 8월 쿠릴스크 구역에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확답을 했다.

그 외 이 자리에서 식량공급문제, 향토박물관 건물 문제 등도 논의되었다.

주지사 권한 대행, 주마 총회에서 2018년 보고와 앞으로의 계획 발표

지난 15일(월) 오후 사할린주두마 회의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2018년 사할린주정부 사업 보고를 했다. 약 30분동안의 보고 내용에서 그는 주요 경제 지표를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안을 소개했다. 주요 과제는 의료, 주거, 도로, 교육과 빈곤 문제 해결이다. 리마렌코 대행은 정부의 주요 과업으로 주민들과 관객들에게 섬을 매력적인 생활 환경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편안한 삶의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로 삼은 대다수의 과제들은 5년에 걸쳐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주지사 권한대행에 따르면 2018년 사할린주 지역생산량은 2017년 지역생산량(8,720 억루블리)보다 높은 1 조 1 천억 루블리다. 1 인당 지역생산량은 230 만 루블리이며, 러시아에서는 5 위, 극동 연방구에는 1 위다. 산업 생산 구조에는 광물채취와 관련한 경제분야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석유 생산량이 8.4 %, 가스는 7.4 %, 석탄은 40 % 증가했으며 고정 자산 투자 규모는 2,18 억 루블리로 추정된다.

"지표가 좋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민들의 생활요건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주택, 보건, 실제 소득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 약 4만7000명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 교육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아직까지 2교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리마렌코 권한대행은 지적했다.

보건분야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500명(면 지방에서는 60%부족)의 의사가 부족하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장비와 면적 등에 있어 현대 표준에 맞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이 진료소를 찾아 몇 시간씩 대기해 의사의 진료를 기다린다.

주지사에 따르면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3년간 시설 50개를 새로 짓고, 낙후된 의료기관은 수리하고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한 원장 등은 해고시키고 대신 대륙에서 고급 전문가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노후 및 붕괴 주택을 철거하고 2021년까지는 매년 새 주택 50만m² 를 준공할 계획이다. 지방 도로건설의 첫 예산 47억 루블리에 더해 현재 5억루블리를 추가 지출한다. 빈곤과의 투쟁에는 연금자, 젊은 가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주에서 3년간 학교 13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은 이 모든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주두마 의원 총회에서 언급했다.

(본사 기자)

단신

사할린주 새 검찰장으로 왜채슬라브 샤이베코브 부임

약 6년간 사할린주 검찰장으로 근무했던 니콜라이 라보브가 하바롭스크 검찰장으로 부임되었다고 전해졌다.

신임 사할린주 검찰장으로는 왜채슬라브 샤이베코브 연해주 제1부검찰장이 임명 받았고, 절차에 따라 사할린주두마에서 18일 승인.

샤이베코브는 하바롭스크 대학을 졸업한 후 장기간 하바롭스크 변강, 유테인자치구 등의 검찰국에서 근무했다.

양 세르게이 작가와의 만남 개최

4월 23일(화)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나는 단순히 살고 있다...>란 주제로 사할린 작가·시인과의 만남이 있다. 세계 책의 날과 양 세르게이 작가의 고회를 기념하는 이 행사는 <자유 마이크> 형식으로 진행된다.

러시아 작가동맹원인 양 세르게이는 자신의 문학창작에 대해서만 아니라 취미로 즐기는 사진, 미술 작품도 소개할 예정이다.

6권의 시집과 소설책을 출간한 양 세르게이의 작품은 여러 문학잡지에 게재되었으며 다수의 문학상도 받았다.

극동의 어린 선수들, 사할린선수권을다투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 아르썬, 우수리이스크, 하바롭스크, 홈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에서 온 6세-16세의 스케이트 선수 70여명이 열리는 스포츠 학교 선수권대회와 사할린주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다.

18일에는 피겨 초보자들을 위한 스포츠학교경기가 열렸으며 19, 20일에는 사할린주선수권대회에는 9세-16세 선수가 승부를 겨룬다.

사할린학생들, 탈 주제로 경연

오는 4월 26일(금) 사할린국립대, 사할린주정부, 사할린한국교육원이 전통적으로 주최한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사할린국립대에서 열린다.

이날 학생들은 탈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어 초보자들은 <하회탈 쓰고 덩실> 시를 암송해야 하고 고등학생들은 <탈 타령>을 두고 발표를 한다.

같은 날 오후 사할린국립대와 사할린한인협회 주최하에 학생들을 위한 한국학 경시대회가 열린다. 그룹별로 나뉜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어 연극, 탈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주내 고등학생, <미래로 스타트>

컨퍼런스에 참여

4월 18-19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미래로 스타트>제12회 고등학생 과학실용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서류단계를 통과한 8-11학년생 100여명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자신의 연구를 발표한다. 이들은 5색선으로 나뉘어 주제발표를 한다. 화학, 생물학, 지리학 및 생태학 분야의 프로젝트를 비롯 러시아 문학, 외국어, 컴퓨터학, 역사, 사회학 등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등 주교육질평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대한적십자사의 주최로 정기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던 사할린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올해는 특별히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16일(화) 극동한인이산가족협회(하바롭스크, 회장 김영준)의 주관 하에 제16차 대표자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한적 측 대표로는 특수복지사업소 김상진 소장·이혜영 팀장·최혜선 담당·유지연 담당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 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부회장, 지역간 사회단체 사할린인협회(모스크바) 김태성 회장, 로스토프나도누 사할린 이산가족 동포회 손춘자 회장, 연해주 이산가족협회(블라디보스토크) 전윤수 회장, 극동지역 한인이산가족협회(하바롭스크) 김영준 회장, 카자흐스탄사할린향우회 리화섭 회장이 참가했다.

한적 대표단장 김상진 특수복지사업소 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대한적십자사 측의 2018년도 사업 결과보고와 사할린동포 단체장들의 2018년도 사업 추진 사항 발표(영주귀국, 모국방문 사업 등)가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도 사할린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일시 모국방문 총 110명(계획 120명)중 1세는 58명, 2세(부모 사망 자녀)는 52명, 영주귀국 3명(계획 16명)중 1세 2명과 배우자 2세 1명으로 집계되었다. 영주귀국자 412명(계획 438명)이 사할린을 비롯해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블라디보스토크 등 전 거주지역을 역방문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2년째 지원한 2-3세 모국방문프로그램에는 309명(계획 270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하여 2-3세 모국방문 프로그램 외에는 여러 사업이 계획한 인원수를 이루지 못했다.

위 사업의 2018년도 총 지원예산은 1,731,262,760원이었다. 일본 정부지원금은 1,141,262,760원(112,773,000엔), 한국 정부지원금은 590,000,000원이다.

이날 향후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논의와 회의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한적십자사의 2019년도 사업계획은 2018년 계획과 비슷하며,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 내용도 최근년의 결의문과 거의 같다. 다만 한국정부에 보낼 결의문에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안 채택을 요청하는 사항을 새로 작성했다. 일본과 한국정부에 해마다 결의문을 보내고 있지만 결의문에 적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참석자들은 재차 유감을 표했다.

당일 진행된 회의에서 2019년도 일시모국방문 대상자 인원 배분 확정, 부모사망 2세 일시모국방문 대상자 자격요건, 2019년도 역방문(친지초청), 2-3세 모국방문 사업에 대한 협의도 논의되었다.

(배순신 기자)

제16차 사할린 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

영주귀국 및 모국방문 사업계획 논의, 한국정부에 사할린한인동포 특별법 채택 요청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 3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2017년 4월, 2018년 4월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 중 희망자에 한해 영주귀국을 허용하라.
3.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들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
4.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5. 부 또는 모 사망자의 모국방문을 추진하라.
6. 장용 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미지급 임금, 우편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사할린 한인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라.
7. 1세가 영주귀국 및 일시모국방문 시 동반자가 동행할수 있도록 추진하라.
8. 2-3세 들이 영주귀국한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왕복 비행료를 지불해줄 것.
9.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를 지원하라.
10. 영주귀국하신 부모님의 장례식에 자녀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왕복 비행기료를 지불해 줄 것.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러시아 및 일본 정부에 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19년 4월 16일

사할린지역대표:

사할린주 한인회 회장 박순옥
사할린주 노인회 회장 김홍지
사할린주 이산가족회 회장 박경춘

극동지역대표:

극동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김영준
연해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전윤수

모스크바 지역 대표:

지역간사회단체사할린한인협회 회장 김태성
로스토프 지역 대표
로스토프나도누 사할린이산가족 동포회 회장 손춘자

CIS지역대표:

카자흐스탄 사할린 향우회 회장 리화섭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 3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2017년 4월, 2018년 4월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한국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사할린동포 지원 한-일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을 희망자에 한해 영주귀국을 허용하라.
3. 한국국적이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러시아 현지 자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라.
4.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들을위해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6. 부모사망자 모국방문 인원을 확대하라.
7.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 지원하라.
8. 영주귀국하신 부모 장례식에 자녀들이 참석할수있도록 왕복 비행기료를 지불해줄 것.
9. 사할린한인 특별법안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19년 4월 16일

사할린지역대표:

사할린주 한인회 회장 박순옥
사할린주 노인회 회장 김홍지
사할린주 이산가족회 회장 박경춘

극동지역대표:

극동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김영준
연해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전윤수

모스크바 지역 대표:

지역간사회단체사할린한인협회 회장 김태성
로스토프 지역 대표
로스토프나도누 사할린이산가족 동포회 회장 손춘자

CIS지역대표:

카자흐스탄 사할린 향우회 회장 리화섭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인구수, 자연적 감소

올해 1월-2월간 사할린주 인구수에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다. 주내 신분등록소에는 779명의 출생아, 1029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었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250명으로 2018년 같은 동시기는 38명이었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지역으로는 4개 지방자치체가 지적되었다. 즉, 아니와구역, 쿠릴구역, 세웨로쿠릴스크구역, 유즈노쿠릴스크구역이다.

주내에는 결혼 303건, 이혼은 297건이 등록되었는데 작년 같은 시기에는 각각 391건과 428건이었다. 주내에 혼인 등록은 2780건, 이혼은 2047건으로 등록됐는데 작년 같은 시기에는 혼인 3087건, 이혼은 2062건이 등록되었다.

사할린주 이민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1-2월간 사할린과 쿠릴지역을 2590명이 방문하였는데 그중 48.2%는 우리 주에 영 이사를 하였다. 다른 한편 2660명이 사할린을 떠났는데 그중 76.1%는 거주등록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사할린주 내에서는 945명이 주거지를 바꾸었다. 일단, 주내 주민이 70명 감소되었다고 사할린주통계국이 전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 январь — феврал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779 родившихся и 1029 умерших. Есте-

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250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38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четы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Анив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303 брака и 297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391 брака и 428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 — февраль 201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2590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48,2%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2660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6,1%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945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70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섬주민들을 위한 <사랑에 대한 노래>공연

4월 20일 사할린 <포베다(승리)>기념종합체에서 <사랑에 대한 노래>공연이 개최된다. 사할린 펄하모니아의 독창가수들 안나 드부레첸스카야와 세르게이 사벨리에브가 섬주민들을 위해 공연할 것이다. 이들은 대조국전쟁 기념 노래와 사랑에 대한 노래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17시에 시작되고 입장은 무료다.

문의 전화 49-57-17.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концерт «Песни о любви»

20 апре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Песни о любви".

Начало в 17:00.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выступят со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Анна Двуреченская и Сергей Савельев. Они исполнят песни, посвященные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а также композиции о любви.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9-57-17.

스미르닉호 학생, <페이지'19>

경연대회에서 우승

스미르닉구역 10학년생인 파벨 체르니코브가 <페이지'19>낭독경연대회 고등학생 부문에서 우승했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와 외국의 고전소설, 러시아 시를 누구보다 우수하게 낭독했다. 4월 26일 이 학생은 이르쿠츠크에 진행되는 <위스토크(동양)>컨퍼런스에 사할린주를 대표할 예정이다.

경연대회 규칙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전혀 모르는 텍스트 일부를 사전 준비없이 감정을 담아 바로 읽어야 했다. 낭독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었다. 지역별 경연대회는 3라운드로 이루어졌는데 참가자들은 러시아 문학, 외국 문학, 러시아 시를 읊어야 했다. 각 라운드 출연후 심사위원들이 참가자 낭독기술과 예술성을 평가했다. 3라운드 결과 리더 3명이 나타났다. 바로 네웰스크 제3학교 엘레나 수마로코와, 아니와 제2학교 다나타 코왈료와와 스미르닉호학교 파벨 체르니코브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학생들은 안나 아흐마토와의 3가지 시를 낭독했다.

낭독경연대회에는 주내 8개 지방자치체를 대표하는 학생 23명이 참가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주씨름대회-씨름이 사할린 인기스포츠로 부각되길 기대하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4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근교에 있는 <위스트크>교육훈련센터에서 제1회 사할린주씨름대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해 겨울 창설된 사할린주씨름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경기 전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관광부 세르게이 부렌코브 장관, 대한씨름협회 박팔용 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 등의 축사와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환영인사에서 사할린에서 적극적으로 한민족 씨름을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춘 알렉세이 회장은 사할린에서 장기간 씨름발전에 노력을 하다가 현재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정용범씨에게 사할린주씨름협회 명예회장 임명증서를 전달했다.

경기는 대한씨름협회가 선사한 실내 씨름장에서 진행되었다. 이 경기장은 은 매트로 시설하여 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모래로 시설되어 있었다. 모래가 건조해야 하는데 경기장이 하루만에 설치되어 모래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경기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홈스크, 네웰스크를 대표해 16세 미만으로 구성된 7개 팀(전체 선수 49명)이 참가하였고 성인은 1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로 레슬링, 그레코로만 레슬링 등 전기기술 익힌 선수들이었다. 전통적인 씨름 기술과 규칙은 복잡하지 않다. 어느 정도 무술을 익힌 사람들은 충분히 씨름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씨름초보자들도 출전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선수들은 올림픽 시스템으로 3점(3번 출전)까지 승부를 다투어야 했다. 팀별 경기에서는 네웰스크팀이 1위, 홈스크팀 2위, 3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스포츠학교 노워알렉산드롭스크 그레코로만레슬링부 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상장과 상금과 함께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특별상도 받았다. 수여식을 하면서 박기동 소장은 "씨름은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힘과 기술을 겨루는 시합이지만 상대방을 타격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는 신사의 스포츠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시합을 하는 씨름의 정신은 오늘날 무한 경쟁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몸에 익혀야 하는 정신입니다. 또한, 씨름을 통해 사할린 시민들께서 심신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사할린간의 유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표명했다. 박 소장은 "러시아에서 씨름이 인기 스포츠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후원으로 이날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강팔용 가수와 <하늘>사물놀이 팀, 그

리고 <에트노스>예술학교의 한민족무용단(지도 최경순)의 훌륭한 공연이 있었다. 이들의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성인 선수들의 출전에 앞서 한국 선수 허진규와 이상원이 한민족 씨름의 아름다운 기술을 시범했다. 화려한 민속 옷차림을 한 류재원씨가 심판을 맡아 멋진 한판 승부를 보여주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대표해 댄 선수들 중 1위를 차지한 김 알렉산드르(<메가팔라스>팀)는 이날 운이 좋았다. 4판 시합을 했어야 했는데 상대 2명이 미출전에 바로 준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었다. 최종전에서 그는 루슬란 야로즈킨과 만나 2대0으로 이겼다.

3등은 울룬베크 오스모날리에브가 했다. 출전한 성인 선수 중에는 키르기즈인 선수가 꽤 많아 사할린주키르기즈협회 응원단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사할린에서 씨름이 널리 알려지면 실제 씨름 발전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협상이 잘 되면 올 8월 광복절을 맞아 사할린과 남북 선수들의 씨름대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한편 주최측은 2018년 10월에 사할린 씨름 활성화에 대한 5각 양해각서 체결식(양해각서에 한국 인천광역시씨름협회 한대호 회장, 사할린주스포츠관광청년정책부 예고르 움노브 부장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그린 솔류시온.>회사 안화자 대표이사, 사할린주 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이 서명)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취재: 배순신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한 잎의 여자 / 오규원>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푸레나무 한 잎같이 썩그만 여자, 그 한 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푸레나무 그 한 잎의 숨털, 그 한 잎의 맑음, 그 한 잎의 영혼, 그 한 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 보일 듯한 그 한 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여자만을 가진 여자,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 여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 눈물 같은 여자, 슬픔 같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시집 같은 여자,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 물푸레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

물푸레나무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푸레나무 비슷한 나무를 발견했던 거죠, 제가. 이곳은 봄이니까요. 봄은 우리 인간에게 꽃을 구경하듯 나무 주위를 빙빙 돌든 일단 거리로 나서게 만듭니다.

저도 이 참에 이름 모를 꽃들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나무 주위를 빙빙 돌고 그랬답니다. 참, 사할린의 새벽은 아직 영하를 기록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물푸레나무 얘기로! 그러니까 제가요.

몰래 물푸레나무로 추정되는 나무 껍질을 살짝 벗긴 뒤 그걸 제방으로 들어와서 유리 잔에 물을 붓고는 그 껍질을 담가본 겁니다. 왜냐구요? 관찰하려고요, 제 두 눈으로 직접. 정말로 푸른 빛을 띄는지 안 띄는지 궁금했거든요. 제 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물은 물이요 껍질은 껍질 그대로였습니다.

'물푸레나무'라는 이름처럼 물빛이 어슴푸레 푸른 빛을 띤다고 들었는데, 참 나. 나무를 잘못 골랐나 싶기도 하고, 한 달은 담가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실패. 어쨌든 그 어슴푸레한 푸른 빛을 봐야, 심장 두근두근 대는 또 하나의 사랑(?)이 찾아오련만, 이번 생(生)에선 어쨌든 '물푸레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를 그것도 몰래 만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헛헛한 마음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라도 한 번 표현해 볼게요."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차가 버섯 한 덩어리처럼 단단한 여자, 만병통치라는 그 한 줌의 흙 빛만 같았던 분말, 그 한 잔의 미지근한 차, 몇 날 며칠을 물바가지에 담아뒀도 결코 물렁덜 생각이 없는 여자,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여자……. 이번에도 제가 좀 멀리갔네요. 부디 너저분한 제 머릿속을 용서해 주시길!

서울에서 허진원.
2019.04.16.



한양대병원, 러시아 사할린주 시립병원과 협약

사할린주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학경험

한양대학교병원(원장 윤호주)은 최근 러시아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윤호주 병원장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본원은 이미 2016년 9월 사할린주정부와 양



이번 협약에 따라 한양대학교병원과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병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할린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두 병원은 공동의학을 위한 실용적인 컨퍼런스,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수행하고 의학 경험을 교류하기 위한 대표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해각서를 체결 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병원과 뜻깊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윤호주 병원장, 이오영 국제병원장, 사할린주 시라예브 안드레이 브세보로도비츠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ошло первенство по ссирым —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на поясах.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и приняли около 60 спортсменов: 49 были заявлены на командное первенство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до 16 лет, еще 12 — выступали в личном взрослом зачете.



Сильнейшими в результате борьбы стала команда Невельска,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Холмска, а третье — спортсмены из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ДЮ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весь пьедестал остался з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гостиницы "Мега Палас", где сегодня сформирова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команда по ссирым, золото завоевал Александр Ким, серебро — Руслан Ярочкин, бронзу — Улунбек Осмоналиев.

Федерация по борьбе ссирым была создана на Сахалине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этому большин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турнира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эт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а были знакомы факультативно —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на песчаную арену в день первенства выход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видов борьбы: от классической греко-римской до дзюдо и самбо.

В отличие от привычных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предполагающих обилие бросков или длительн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в партере, каждая схватка в ссирым решается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одним движением, ведь проигравшим считается тот, кто первым коснулся песка любой частью тела выше стопы. Столь жесткие условия диктуют достаточно осторожную тактику — на прием, рискуя нарваться на контратаку и проиграть, идут лишь после взвешенного расчета. Это задает схваткам довольно непривычный рваный ритм: чуть ли не все отведенное время соперники могут простоять в настороженном клинче, чтобы решить исход поединка одним стремительным секундным рывком.

Ссирым —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Кореи, известна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развивается на юге страны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вид спорта, со своей федерацией и престижными турнирами. Схватки борцов проходят в небольшой песочнице, задача спортсменов — удерживая соперника за специальный пояс, уронить его на арену. На Сахалине ссирым развивается уже более 70 лет — эта борьба была популярным видом спорта у привезенных на остров корейцев. Любительские турниры по ссириму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ходят в августе — когд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мечают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Кирилл Ясько
ИА Сахком

Вспоминая прошлое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4)

В 1947 году пр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были созданы корейский концертно-эстрадный ансамбль и театральная бригада, а в 1948 году отдел культуры облизполкома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на базе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Приказом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искусств пр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РСФСР от 27 августа 1948 года № 832 театр включили в театральную сеть страны и присвоили ему четвертую категори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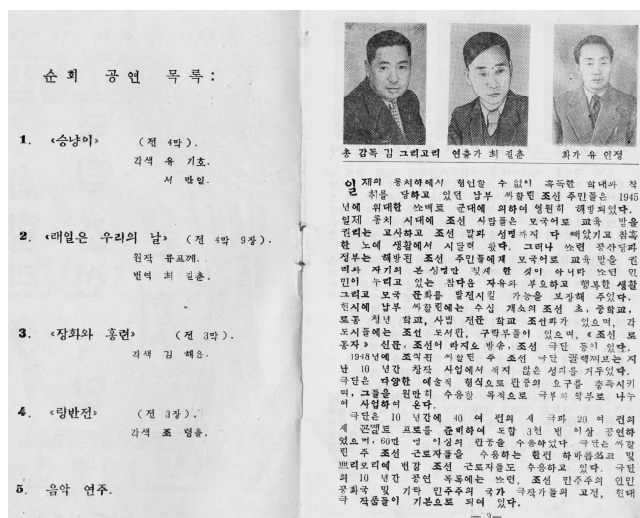
Главной предпосылкой для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стало налич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формировавшейся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еще д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1 июля 1946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проживало около 27 тыс. корейцев.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цев в 1946-1948 годах мало затронула корейскую часть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данных.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на основе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корейцы набирались по вербовке (их называли «пагенномудя» — верб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на срок от одного года до трех лет для работы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пагенномудя», приезжавших в область, направлялись на рыбокомбинат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аким путем с 1946 по 1949 год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были из КНДР более 26 тыс. рабочих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а выехали на родину около 14,5 тыс. человек. С конца 40-х годов началось переселение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тех самых, что были высланы по указанию Сталина 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из Приморья и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в 1937 году.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правлялись специалисты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ра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В середине 1951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ло 42,9 тыс. корейцев.

Начинать новому театру пришлось почти на пустом месте, поскольку своего здания он не имел, а найти подходящее помещение для аренды в послевоенн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ыло весьма сложно. Первое время актеры работали в обычных складских помещениях, наскоро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ных под репетиционный зал. Лишь в ноябре 1949 года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передали театру здание бывшего японского театра по улице Театральной, 79 (ныне — район перекрестка улиц Хабаровской и Крюкова). Здание постройки 1930 года оказалось крайне ветхим и нуждалось в капитальном ремонте, но артисты и этому были рады.

Серьезные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ли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труппы. Поскольку всерьез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риезд с материк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актеров-корейцев не приходилось, коллектив театра формировался в основном из прибывших в те годы из КНДР по вербовке. Как правило это были н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актеры, а скорее люб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и просто творческие люди. Лишь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занимались на родине искусством, как танцовщица Ким Чун Су.

Новорожденному театру постоянно не хватал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переводчиков. Сохранился любопытный документ за подписью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Главрепертком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Попретинского, который на замечание своего московского начальства о том, как он разрешает к постановке пьесы, не владе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сообщал: «Прежде, чем разрешить к постановке пьесу, ее прочитывают в обкоме партии. Когда пьеса получает одобрение обкома, разрешаю над ней работать. При



сдаче спектакля комиссии отпечатываются краткие аннотации и, кроме того, во время действия люди, зн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ереводят фразу сразу же после их произношения на сцене».

Между прочим, сейчас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насколько сложной задачей являлось созда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кой командно-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истемы. Приведем лишь один пример.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на 1952 год дл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семь рабочих ставок,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содержания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здания (четверых чочгаров, уборщицу, завхоза, гардеробщицу и контролера), руководству облизполкома пришлось обращаться за разрешением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штатную комиссию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И даже более того, сохранилась заготовленная копия письма по этому же поводу, адресованная самому Председателю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К.Е.Ворошилову.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явленную «инициативу» и поддержку местных партийно-советских органов, первое время новому театру приходилось крайне туго. Выделенное здание, рассчитанное на 300 мест, нуждалось в капитальном ремонте, а еще надо было подготовить декорации, сшить костюмы и сделать в общем-то своими руками множество других вещей, на которых складывается атмосфера и колори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И хотя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находилс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отации, составляющей около 300 тыс. рублей в год, средств на его организацию явно не хватало.

Свое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базы област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не имели, а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тот период были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ы. Массу хлопот доставляло изготовление реквизита и бутафории.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предме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ихода —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от, драматург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всего остального, то их пришлось приобретат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 затем доставлять на Сахалин. Хватало и иных проблем, чисто бытовых и житейских, среди которых, как водится, сложнейшим был квартирный вопрос.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твор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составляла около 800 рублей, что выглядело по сахалинским меркам довольно скромно,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десятипроцентную «хлебную надбавку».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Цупенкова(Костанова)
(Из книги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2001)

Сахалинск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Федерация настольного тенниса»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34-й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Чемпионат состоится 27 апреля 2019 г. в 10-00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Полевая, 6.
Вас ждет увлекательная и интересная игр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ись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15 апрел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ся седьмой раунд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РК и РФ на уровне первых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о Хёна и Владимира Титова.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и другие тем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оссийском МИД, стороны подтвердили «обоюдный настрой на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уществующих проблем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путём диалога между всеми вовлечё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стремиться к увеличению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до 30 млрд долларов и взаимных посещений гражданами двух стран до 1 млн человек к 2020 году, когда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тот же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приня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Игорь Моргулов.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В РК вспоминают жертв трагедии паромов «Сэволь»

16 апреля исполнилось ровно пять лет с момента гибели парома «Сэволь». В Зоне отдыха Хваран в городе А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остоялась пам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Её организовали Фонд 16 апреля и Ассоциация семей жертв трагеди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5 тыс. человек. В их числе члены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вице-премьер Ю Ын Хе, министр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ун Сон Хёк и дру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В программе церемонии выступления вице-премьера Ю Ын Хе,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семей жертв трагедии Чан Хуна, зачитывание памятных писем, выступление хора и другие. Аналогич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дготовлена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зале в Инчхоне, а также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езидент РК отправился в поездку по странам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16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отправился в очередную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в ходе которой посетит три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Туркмени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и Казахстан, которые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е Сеула. С 16 по 18 апр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где встретится со своим коллегой Гурбангулы Бердымухамедовым.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ы ре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18 апреля Мун Чжэ Ин прибудет в Узбекистан, где проведёт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Шавкатом Мирзиёевым по совмест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проектам. С 21 по 23 апр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осетит Казахстан. Там он встретится с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Касым-Жомартом Токаевым. Ожидае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остроения доверит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нов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азахстана. 23 апр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ернётся на родину. Это первый визит Мун Чжэ Ин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мае 2017 года он приступил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им Чен Ын переизбран на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Участники первой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днопалат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КНДР 14-го созыва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и в четверг переизбрание Ким Чен Ына на высший пост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н переизбран «по единодушному мнению народа страны». Депутаты утвердили ряд кадровых перестановок. Ким Чжэ Рён избра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НДР. Накануне пленум ЦК ТПК избрал его членом ЦК и членом во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ТПК. Утверждены также новые министры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труда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стальные министры остались на своих постах.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оторый исполняет полномочия парламента в период между сессиями, избран Чхве Рён Хэ. Он сменил на этом посту Ким Ён Нама, которому исполнился 91 год. Одновременно Чхве Рён Хэ утверждён в должност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став, фигурой номер два 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КНДР после Ким Чен Ына. ЦТАК сообщает также, что депутаты утвердили измене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ю КНДР, не приводя при этом подробностей.

(RKI)

Три авиакомпа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будут проданы

Вторая крупнейш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Asiana Airlines будет выставлена на продажу. Вместе с ней будут также проданы и корейские лоукостеры Air Busan и Air Seoul, которые принадлежат Asiana. Ориентировочная сумма сделки - около одного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 концерн Kumho Asiana Group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анки-кредиторы отклонили предложенный план улучшения финанс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пании.

О том, что над Asiana сгущаются тучи, говорили уже давно. По итогам 2018 года компания заявила об убытках на сумму 248 млрд. вон (около 218 млн. долларов). Две недели назад глава авиакомпании Пак Сам Гу подал в отставку, уйдя в том числе и со всех постов в концерне Kumho Asiana Group, взяв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рова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а также за скандал, который возник вокруг финансовой отчетности Asiana. В этой связи бы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концерну придется пойти на серьезные реформы в авиакомпании,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главного кредитора в лице Korea Development Bank (KDB). Когда же банк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отверг предложенный концерном план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и оздоровления Asiana, то стало ясно, что концерну придется принимать нелегкое решение.

В итоге сегодня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Kumho Asiana Group было решено выставить на продажу принадлежащий концерну пакет акций Asiana Airlines. Входящая в состав Kumho Asiana Group компания Kumho Industrial владеет 33,47% акций авиаком-

пании, контролируя Asiana. Об этом решении действующий президент Asiana Airlines Пак Се Чхан сегодня уже уведомил KDB, когда встретился с его президентом Ли Дон Голем.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дробный план сделки будет выработан уже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Скорее всего, точно также будут проданы и все дочерни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в холдинг Asiana Airlines, включая лоукостеры Air Busan, Air Seoul, компании Asiana IDT, Asiana Development и другие.

В качеств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контрольного пакета акций Asiana Airlines названы корейские концерны SK, Hanwha, CJ Group и другие. Впрочем, потенциальные покупатели отказались давать какие-либо комментари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а в ряде концернов вообще сказали, что ничего не знают о подобных планах.

Продажа Asiana Airlines приведет к серьезным изменениям в статусе Kumho Asiana Group. До сих пор на Asiana Airlines приходилась до 60 и более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оборота концерна, а после продажи главной компании Kumho Asiana Group существенно уменьшится в масштабах. Впрочем, по мнению экономистов, этот шаг по продаже Asiana послужит финансовому оздоровлению как концерна, так и сам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Asiana Airlines наряду с Korean Air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двух крупнейш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Южной Кореи. При этом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если не по масштабам, то по уровню сервиса Asiana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Олег Кириянов (Сеул, РК)

Лидер КНДР посетил Кымсусанский дворец Солнца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Кымсусанский дворец Солнца в Пхеньяне по случаю 107-й годовщины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основателя страны Ким Ир Сена.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лидера КНДР сопровождали высш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страны -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Чхве Рён Хэ,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ТПК,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Пак Пон Чжу, председатель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им Чжэ Рён и члены госсовета. День Солнца –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праздников в КНДР. В этот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цы возлагают цветы к подножиям статуй и панно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вождей, на площадях проходя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Лидер КНДР може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может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в конце апрел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Yonhap со ссылкой на «осведомлённые источник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обирается посетит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24 апреля для участия во внутреннем мероприятии.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и возможно проведение саммита. Затем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Один пояс, один путь»,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Пекине 26-27 апреля. Саммит может пройти до или после пекинского форум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хеньян активизирова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онтакты с Москвой.

(KBS World)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gmail.com,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67-85, 43-72-94.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мая 2019 г.

Призы:

Поезд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т.ч. путев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и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 на 2 недели).

Лауреаты награждаются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усти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39 курильских семей отпразднуют новоселье в этом год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ознакомился с состоянием жилого фонда на Итуруп.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ускор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ов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о аварийным более 7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Также, по оценк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более 10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 дома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износа. В Курильск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етил квартиры жителей аварийного дома №1 по улице Полевого.

– Окна все гнилые, трещины по стенам и потолку, в полу такие дыры, что крысы бегают, зимой очень холодно из-за сквозняка. Но самая главная проблема – у нас нет душа и ванны. У меня мама – дитя войны, ветеран труда,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ей тяжело часто ходить в баню,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Курильска Марина Шестовицкая.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ех домов в Курильске и Китовом. Еще два дома – на 21 и 18 квартир - будут сданы в селе Рейдово. Кроме того,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жителей сел Горное и Горячие Ключи будет возведено более 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мы полностью закроем проблему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хотя изначально эт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сделать за шесть лет. На мой взгляд, решение этого вопроса нельзя откладывать, необходимо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ереселить людей из домов, опасных для жизн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определено 18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под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2,5 гектара земли будет передано по соглашению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В 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также возникают трудности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медицинских и друг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начало возводить четыре дома для сдачи в коммерческий наем, но эта работа была заморожена. Сегодня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озобнов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дать многоэтажки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90 квартир получают работники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врачи, учителя, сотрудник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и дру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на Курилах.

Квартирный вопрос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может быть решен четырьмя способам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домов,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на первичном и вторичном рынках,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устующе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жилфонда, выкуп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у собственников. С переселенцами будут заключать «Соглашение о намерениях», чтобы они заранее знали, куда и когда переедут.

На Сахалине чествовали столетнего юбиляра

15 апреля день рождения отметил старейший житель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 ветера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иколай Степанович Наумов.

Разделить радость вместе с юбиляром пришли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друзья, коллеги и сорат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другие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От лиц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глав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олжителя поздравил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Алексашина.

– От чистого сердца поздравляем с юбилеем! Жела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неиссякаемой жизненной энергии. Пусть каждый день приносит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а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окружают вниманием и заботой, – сказала Татьяна Алексашина.

Николай Наумов не тольк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ак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и, но и является отличником в спорте. Ветеран участвует в турнирах по стрельбе и игре в шахматы, где занимает призовые места. С юбилеем и спортив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почетного жителя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р Умнов, вручив грамоту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 Уверен, что у Николая Степановича есть свой секрет долголетия.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это любимое дело, жизнь в согласии с самим собой и, конечно же,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 сказал Егор Умнов. –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у нас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своим личным примером воспитывают нашу молодежь, и Николай Степанович один из них.

Сам же юбиляр рассказал, что никакого секрета долголетия нет, главное – не тратить нервы по пустякам, помогать людям и вести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 Я никогда не курил, старался не ругаться с людьми, не портить настроение себе и окружающим. Всю жизнь занимался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и спортом. Это и помогло мне дожить до таких лет, – поделился Николай Степанович.

Николай Наумов родился в 1919 году в Куйбышевской области.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ес службу в Монголии. Удостоен множества наград.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 в 1947 году в составе армей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 окончании юрид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етеран трудился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Работал в районной прокуратуре, райкоме КПСС, отрасл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юбиляру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поч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Николай Наумов был в числе факелоносцев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а также победителем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ша гордость-2018» в номинации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а Сахалине увеличили втрое

На эти цели в 2019 году направлено 4,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б этом сегодня сообщи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ая с отчето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парламенте.

В 2018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ервую пятерку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по объему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ставил 1,1 триллиона рублей.

– Эти показатели выглядят довольно убедительно. Наша задача – превратить их в хороши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комфортны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квартиры, уютные дворы, новые асфальтированные дороги, достаток в семья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жде всего, считает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а островах. Таковым сегодня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о порядка 2 процентов от всего жилфонда (262,2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и этом объемы потенциально опасного жилья гораздо выше, чем считалось ранее. Та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епригодными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признаны 9,3% от всех домов региона.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сегодня нуждаются более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тобы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чем в 3 раза увелич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 с 1,2 до 4,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Каждое муницип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будет решать вопрос рассел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использовать четыре способа.

Первый –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на первичном и вторичном рынках, на что в бюджете заложено 3,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торой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домов. Е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 8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Третий способ –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устующе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жилфонда. На это предусмотрен 3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Четвертый вариант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 выкуп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у собственников. Его бюджет –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Чтобы ускорить возведение новых домов,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кратить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цикл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Выход на этап возведения жилья сокращен на 30 дн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л, что уже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РФ о передаче неиспользуемых военных земель под жил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сего – более 12 тысяч гектаров. Участки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 мнению депутата облдумы Олега Сaitова, рассел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 одна из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Подобные вопросы он часто слышит от своих избирателей – жителей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епутат отметил, что главное достоинство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ликвидаци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 наличие не только необходим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о и реальных механизмов рас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направили 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 борьбу с бедностью

В 2019 году на такую сумму в регионе окажут помощь всем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м жителям. Об этом сегодня заяви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ая с отчето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парламент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показали основные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ской экономики. Добыча нефти и газа выросла на 8,4 и 7,7 процен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1,4 раза увеличилась добыча угля.

– Экономическая база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имеется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ая. И у нас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чтобы добиться изменений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людей, решить самые насущные проблем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чти десятая час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или 47,6 тысяч нуждается в помощи. Из них 17 тысяч – это малоимущи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16,6 тысяч – малоимущие пенсионеры 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14 тысяч – безработные и самозанятые.

На борьбу с бедностью в 2019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ло в бюджете 3 млрд рублей, из них 400 млн рублей выдел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 начале года,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новые меры соцподдержки.

С 1 января 2019 года в регионе была увеличена на 20 процентов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сем работникам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олучает практика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Суть данн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том, что островитяна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ежемесячно перечисляются средства на обучение или открытие своего дела. С начала года с сахалинцами и курильчанами заключено 88 социальных контрактов.

Расширяется и практика адресной помощи. Так, с 3 до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год увеличены выплаты тяжелобольным сахалинцам, которым требуется дорогостоящее лечение. В 2019-ом такую поддержку получили 15 человек.

Для всех нуждающихся в улучшен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установлен единый размер компенсаци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 до 60 процентов.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ю до конца года смогут около 1000 семей. Впервые с этого года инвалиды I и II групп получают от 2,5 до 3,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ли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Введена ежемесячная социальная выплата 1500 рублей для неработающих ветеранов и инвалид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лучающих пенси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ю смогут более 700 человек. Кроме того,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получили семьи ветеранов, участвовавших и погибших в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в Чечне (25 тысяч рублей) и Афганистане (30 тысяч рублей) и ветераны – участни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острове Даманский (5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ветеранов, блокадников, узников фашизма, членов семей погибших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и других нуждающихся введены бесплатные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ые путевки. Получить их смогут 1200 человек.

Среди других мер поддержки – компенсации малоимущим на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цифров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до 15 тысяч рублей), а также владельцам частных дом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угля и дров.

В област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6 новых современных центров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будут приобретены 2 спецмашины для «мобильных бригад». Так малоимобильные люди, проживающие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смогут быстрее получать социальные услуги. Услуга заработает в 4 квартале 2019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с еди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картой для все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Он дает право на льготный проезд для ветеранов войн, детей войны, людей старше 70 лет. В мае он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ен по всему региону. Картой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16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аждой женщин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дохода семьи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с 1 апреля 2019 года вручается подарочный набор с самы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принадлежностями.

– Как видите, мы стараемся охватить все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енные группы граждан,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ся адресно и продуманно. Мы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что рождение ребенка или выход на пенсию не должны ставить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в тяжелое положение. Планируем к 2024 году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бедно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в 2 раз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е парламентарии внесли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Виталий Гомилевский считает важным ввести бесплатное питание для всех школьников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им обеспечены учащиеся 1-4 классов.

По поручению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и предметно рассмотрено будет также инициатив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я Хапочкина – о снижении на пять лет возрастной планк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ежеквартальной выплаты островитянам, проработавши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40 и более лет.

Финалистами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и 200 человек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этап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тестирования кадрового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финал проекта приглашены 200 конкурсантов с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ми совокупным баллом, сформированны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естирования и оценки эссе.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лагодарил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прошел испытания, но не попал в финал. Впереди у нас много дел и мы встретимся с вами на разных новых проектах в будущем. Финалистов ждем 19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сказа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о втор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048 человек из 1176, получивших приглашение к прохождению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нты, допущенные к финальным испытаниям, представляют 26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60,91 процента из них –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едом по числу финалистов идут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город Москва с показателями 7,6, 6,6 и 5,08 процен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реди приглашенных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мужчин.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до 35 лет составляют 51,27 процента. Значительная доля участников очного этап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фер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19,8 процента). Также в топ-5 по сферам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феры услуг.

19 апреля 2019 года конкурсанты, допущенные к финальным испытания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контрольном тестировании, которое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Финалисты должны будут подтвердить свои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этапа очно в присутствии эксперта.

Напомним,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Цель конкурса – сформировать высокоэффективную команду управленцев для и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в конкурсе свыше 1300 желающих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 4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из них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масштабного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22 апреля. В качестве наград молодые управленцы разделят 10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грантов по 1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и до 15 грантов на реализацию волонтер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Также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ре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 бизнес-корпорация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여성독립운동 서울전] ② 들불처럼 번진 3·1운동과 여성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3.1운동 지도, 유관순 열사 인물카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등

(전호의 계속)

4쪽으로 된 '일본 외무성 불령단관계잡건'도 눈길을 끈다. 1918년 6월부터 1920년 6월까지 일본이 작성한 '조선 여자친목회, 여자친목회, 여자학흥회 등에 관한 보고서'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영인본 '기미독립선언서'(1919년 3월)와 '대한독립여자선언서'(1919년 2월)는 당시의 열정을 전하기라도 하듯 전시장 한편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 소장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중국의 길림에서 작성·선포되고 노령에서 제작·인쇄된 후 일본, 중국, 미주, 국내 등 각지로 배포됐다.

선언서는 "간장에서 솟는 눈물과 중국에서 나오는 단심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대한 동포에게 엮드려 고하오니 동포 동포여, 때는 두 번 이르지 아니하고 일은 지나면 못하니, 속히 분발할지어다 동포 동포시여, 대한 독립 만세"로 끝을 맺는다.

남과 북 전역의 여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만세운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한반도 지도도 눈에 띈다.

지도 각 지역에는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짜와 장소가 표기돼 있다.

평안도 3·1 선천 보성여학교', '함경도 3·1 원산 진성여학교·루씨여학교', '경기도 3·17~22 파주 구세군 임영애', '전라도 3·8 광주 수피아여교', '충청도 3·20 천안 입장 광명여학교', '경상도 3·19 진주 기녀' 등이라고 알린다.

여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알려주는 판결문과 신문 기사도 전시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송의여학교 김경희 등의 판결문'(1919년 5월 29일.국가기록원), '부산진 일신여학교 10명 학생 기소에 관한 기사'(매일신보 1919년 4월 7일자),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 등의 판결문'(1919년 4월 30일.국가기록원) 등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우리가 교과서와 사전 등에서 만났던 유관순 열사의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국사편찬위원회)도 새삼 다가온다. 이 카드는 최근 개봉했던 '항거:유관순 이야기'에서 어떻게 촬영했는지를 보여줘 당시 상황을 더 실감 나게 한다.

사진을 마주하고 있으면 유관순 등이 '8호 감방'에서 불렀던 노래 "접시 두 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도 들리는 듯하다.

강원도 양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조화벽(1895~1975) 지사의 사진도 공개됐다. 그는 독립선언서를 버선목 속에 숨겨 양양 성내리 감리교회의 청년부 지도자 김필선에게 전달, 4월 4일 양양 장날에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또 조화벽 지사의 남편이자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1988~1968) 지사가 사용하던 가방도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나라를 구하는 데 귀천은 없다'고 외치며 일어난 기녀들의 만세운동도 엿볼 수 있다.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이 전개되고 전국 각지로 퍼지자 진주·수원·해주·통영 등지의 기녀들도 분연히 일어나 만세운동을 벌였다.

'통영 기녀 이소선과 정막래의 판결문', '해주 기녀 조합장 문월선, 김해중월, 이벽도, 김월희, 문향희, 화용, 금희, 채주 등의 시위에 대한 신문기사', '김향화의 출옥, 수원 기생 관련 기사' 등의 사진 자료가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계속)
(출처: 연합뉴스)

“상해보다 러시아 연해주에 임시정부 먼저 생겼다는 점 주목해야”

4월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서 '대한민국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상해임시정부보다도 한 달 먼저 연해주에 임시정부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고등경제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이 이같이 역설했다.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모스크바기념사업회(회장 김원일)가 주관하고, 러시아독립유공자협회(회장 최 발렌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러시아고등경제대 동양학부,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 모스크바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과장 외에도 김영웅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전소련 연방의회 의원), 김 나탈리아 러시아고등경제대 한국학과장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지 한인언론 모스크바프레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학술회의에서 패널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가 진행된 곳은 러시아고등경제대. 러시아의 명문대 중 하나이자, 특히 한국학과가 유명한 대학으로,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과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1919년 당시 연해주에서는 러시아와 한국민 사이에 강한 반일본제국주의 투쟁연대가 있었다"면서 "상해임시정부보다도 한 달 먼저 연해주에 임시정부가 형성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웅 선임연구원은 "신생 소비에트정부는 임시정부와의 반일공동투쟁에 매우 큰 관심이 있었고 이것이 소비에트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 지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소비에트정부가 임시정부 파견자(한형권)를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대사로서까지 표기하고 대접했을 정도로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안타깝게도 내분이 있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나탈리아 러시아고등경제대 한국학과장은 "100년 전 당시 한국어에 대한 러시아어 표기법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같은 독립운동가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표기했으며, 가명을 쓰는 독립 운동가들도 많아 정확한 역사적 행적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근현대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모스크바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김원일 박사는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주제의 발표를 했다. 그는 "임시정부가 표방하고 지향한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란 두 이념은 한국이 해방 후 정치발전을 이루는 데 주춧돌과 나침반이 됐다. 해방 후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은 임시정부의 지향점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주러시아한국대사관 이진현 정무공사, 최재형 선생의 손자인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 김 에두아르트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모스크바지역위원장 등 현지 인사들도 참석했다.

1부 학술회의 후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라는 제목의 공연이 진행됐다. 발레리 수히닌 전 북한주재러시아대사의 기념사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러시아명문 그네신 음대 박사인 소프라노 임안나씨의 무대가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모스크바기념사업회 김원일 회장은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뜻깊다. 한러관계의 역사성을 밝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월드코리안, 이석호 기자)

2019 재외동포 학생들 위한 '국내교육과정' 입학식

국립국제교육원, 43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교육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직무대리 김우정)과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박달원) 한민족교육문화원은 4월 2일(월)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12개국에서 온 43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공주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한민족교육문화원 원장, 재외동포 교육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은 재외동포 학생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매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참여하는 재외동포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대학수학 준비과정, 한국 이해과정, 방학 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연 8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학수학준비과정(I)은 4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5개월간, 한국이해과정(봄)은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각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역사이해, 세계시민교육 등 재외동포만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 학생들은 역사 문화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 한국의 전통, 현대 문화체험, 한국 대학생 및 현지인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다.

이번에 입학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안젤리나(카자흐스탄) 학생은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나의 뿌리를 알게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재외동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1962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현재까지 8,950여명의 재외동포 학생이 수료하였으며, 2회차 신입생 모집은 오는 4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해당 증서가 수여되었고 스미르니흐 학생 파벨 체르니코브는 챔피언 칭호를 받았다. 디플롬과 컵 외에 우승자는 참가자들이 대회에서 읽은 모든 책을 선물로 받았다.

사할린섬에서 이러한 행사는 처음 개최되었다.

Смирныховский школьник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Страница'19"

Десятиклассник Павел Черников из Смирных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чемпионата по чтению вслух сред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Страница'19". Его прочт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прозы, русской поэзии стало лучшим, по мнению жюри. 26 апреля школьник представи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осток",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Иркутске.

По правилам чемпионата, участникам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очитать вслух выразительно незнакомый фрагмент текста. Время чтения ограничено одной минут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проводился в три раунда: чтение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русской поэзии. После кажд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члены жюри оценивали технику чтения и артистизм участников. По итогам трех раундов в тройке лидеров оказались Елена Сумарокова из школы №3 Невельска, Даната Ковалева из школы №2 Анивы и школьник из Смирных Павел Черников. В финальном раунде ребята читали три разных стихотворения Анны Ахматовой.

Всего в чемпионате принимало участие 23 школьника из 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чемпионата были вручены дипломы финалистов, а школьник из Смирных Павел Черников удостоен титула чемпиона. Помимо диплома и кубка, победителю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а достались все книги, 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читали на чемпионат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первые.

이고리 사마린의 사진전 토마리에서 개최

토마리 문화회관에서 사할린 지역학자·고고학자·민족학자인 이고리 사마린의 <군 영광의 섬들>이란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회를 2개월 간 찾을 수 있다.

전시회는 사진작가가 직접 열었다. 그가 15년동안 모은 사진은 주내 여러 곳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는 70년전 남사할린 공세 작전과 쿠릴열도 상륙 작전이 벌어졌던 장소들이 반영되었으며, 녹슬고 파손된 대포 등은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고리 사마린은 전시회에 소개된 사진으로 구성된 앨범을 토마리 향토박물관에 기념품으로 선사했다.

한편 토마리는 지역학자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4번째 도시가 되었다. 전에 그의 전시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노글리키와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이미 열렸었다.

В Томари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раеведа Игоря Самарина

В холле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Томари разместилась выставка фотографий островного историка, археолога и этнографа Игоря Самарина «Острова ратной славы». Посетить ее можно будет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Открыл выставку сам автор. Снимки, которые он собирал в течение 15 лет, сделаны в различных уголках области. На них запечатлены мест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роходивших в рам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й, ландшафты, на которых 70 лет назад шли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о чем сейчас напоминают ржавые останки орудий.

Игорь Самарин вручил Томаринскому краеведческому музею небольшой памятный подарок – альбом с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на выставке фотографиями.

Кстати, Томари стал четвертым городом, в котором краевед представил свои работы. Ранее выставку могли посетить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Ноглик и Углегорск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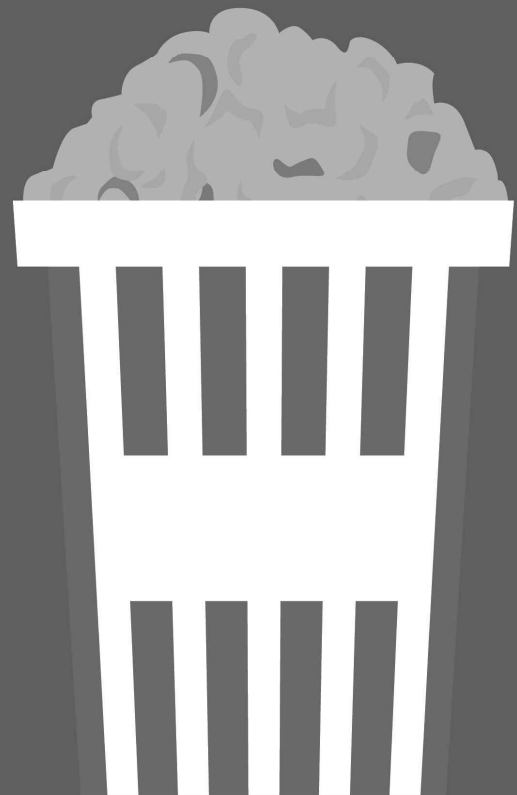
콩쿠르조직위원회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